

산업재해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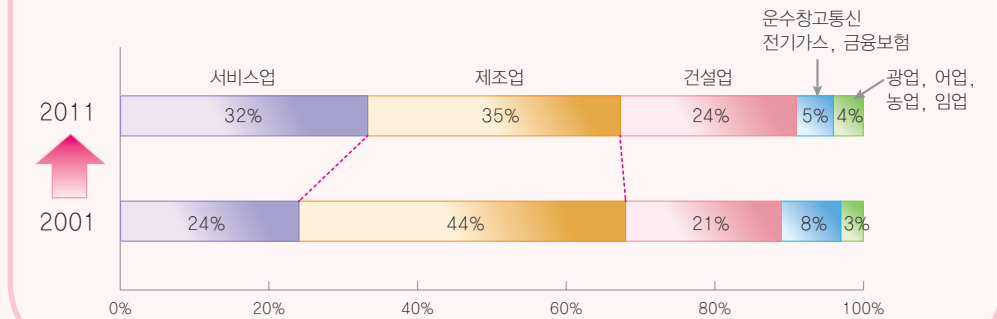
서비스업에서 재해는 갈수록 증가!!

2011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자는 93,292명이며, 이중 사망자는 2,114명!
서비스업에서는 29,736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, 이 중 사망자는 381명!

● 2011년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,

⇒ 1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할 때 54% 증가, 사망근로자는 277%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

산업별 재해자수 변화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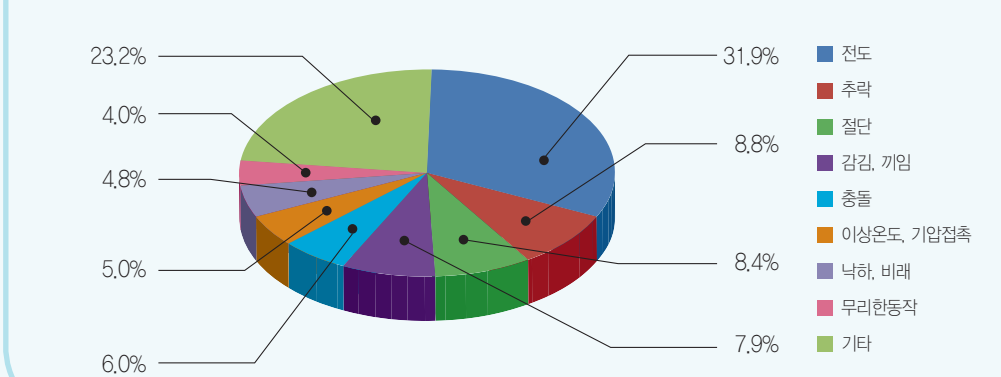
서비스업 재해는 6대업종(건물관리업, 음식 및 숙박업, 도소매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, 교육서비스업)에서 전체 재해의 87.8%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재해유형

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예고없이 발생하고, 이로 인해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

● 서비스업에서는 미끄러짐과 걸려넘어짐에 의한 재해가 전체의 1/3을 차지합니다.

서비스업 형태별 재해발생 현황 ('11년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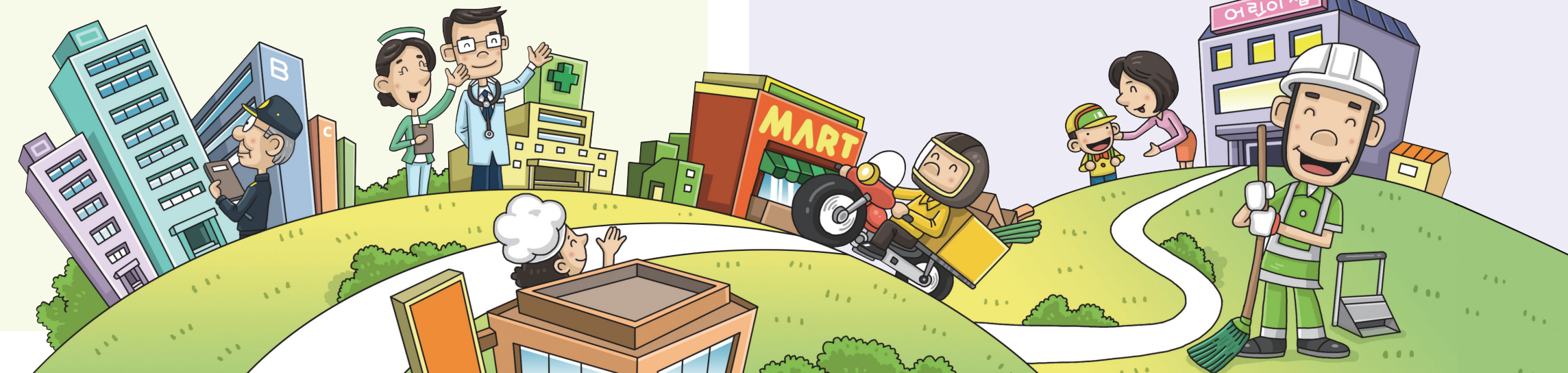
산안법 소개

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

●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

- ⇒ 위험한 기계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
- ⇒ 유해 · 위험한 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
- ⇒ 넘어지거나 추락, 충돌, 감김 · 끼임 등으로부터 보호
- ⇒ 안전화 ·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, 안전보건표지 게시
- ⇒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
- ⇒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등
- ⇒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

산업안전보건법은 법제처 법령정보 또는 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

공단사업 소개

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께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

●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아래 사항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.

- ⇒ 창업 또는 사업 중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· 점검 등
- ⇒ 컨설팅 · 점검 등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안전 · 보건조치 또는 보호구 구입비용을 지원 (소요비용의 50~80% 무상지원, 근로자수 50인미만에 한함)
- ⇒ 유해 · 위험요소에 대한 자율적인 위험성평가 지원
- ⇒ 재해발생시 적시 기술지원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
- ⇒ 서비스업 재해사례집, 근로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



공단미디어
소개

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에
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

-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대한 근로자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.
- 현장에 부착할 안전·보건 포스터, 스티커를 제공해 드립니다.
-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현장에서 안전보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▶ 자료 검색 :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> 안전보건정보 > 업종별 안전보건자료 > 서비스업



http://www.kosha.or.kr

산업재예방
안전보건공단

「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」

안전보건공단 지역별 문의처

서울·강원		부산·경남		대구·경북	
서울지역본부	02-828-1665	부산지역본부	051-520-0594	대구지역본부	053-609-0564
서울북부지지원	02-3783-8307	울산지지원	052-226-0564	경북동부지지원	054-271-2021
강원지지원	033-815-1056	경남지지원	055-269-0523	경북북부지지원	054-478-8064
인천·경기		광주·전라		대전·충청	
경인지역본부	032-260-3786	광주지역본부	062-949-8785	대전지역본부	042-620-5634
경기남부지지원	031-259-7264	전북지지원	063-240-8564	충북지지원	043-230-7118
경기북부지지원	031-828-1943	전남동부지지원	061-689-4916	충남지지원	041-570-3411
경기동부지지원	031-785-3356	제주지지원	064-797-7526		
부천지지원	032-680-6553				

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?
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
안전보건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



서비스업
산업 동향

서비스업의 신규창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
산업재해 발생 또한 증가가 예상됩니다.

- 2011년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비스업의 사업장수와 근로자수는 106만개소, 649만명에 달하고 있으며, '01년도 대비 2배 이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- 올해는 경제상황이 불안하고, 1955~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퇴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어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.
-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이 재해에 취약한 요인을 지니고 있습니다.
 - ⇒ 다양한 업종과 직종, 위탁·파견 등 복잡성으로 인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습니다.
 - ⇒ 휴·폐업이 잦고 사업규모가 작아 재해예방 투자가 미흡합니다.
 - ⇒ 고령 및 여성, 계약직, 이주근로자 등 재해발생 취약계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.
 - ⇒ 모든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서비스업을 이용하고 있어 매장·현장 이용 고객들의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.

‘서비스업’이란, 산재보험 분류상 ‘기타의사업’에 분류된 업종을 뜻함. ‘기타의사업’에는 ‘음식숙박업, 위생서비스업, 보건및사회복지사업, 도소매업, 건물관리업, 교육서비스업, 사업서비스업 등’을 포함하고 있음